

해남군, 재생에너지 메카 발돋움 ‘총력’

RE100위원회 솔라시도 방문
‘데이터센터파크’ 현장 견학
에너지집적화 단지 활성화 모색
“지속적 교류 협력·상호 발전”

해남군이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해남군은 30일 진우삼 한국 RE100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 일행들을 맞아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파크 현장 견학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은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4월 재단에서 주최한 2024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석해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해남, 재생에너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기조 발표하고,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B2B(기업간 거래)에도 참여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포럼을 통해 선보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데이터센터파크와 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군은 30일 진우삼 한국 RE100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 일행들을 맞아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파크 현장 견학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남군 제공

재단의 상임이사이자 한국RE100위원회 진우삼 위원장과 임직원들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데이터센터파크 부지와 태양의 정원 등 에너지 집적화단지를 둘러보고, 해남군의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1조4400억 투입, 인구 3만6600명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총 165만㎡(50만평)규모의 RE100 산업벨트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반경 10km이내 4개 지구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3000억원 규모의 각종 개발 사업과 맞물려 ‘꿈의 도시’의 청사진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진우삼 한국 RE100위원회 위원장은 “탄소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잡아 가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친환경적이면서도 미래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임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해남군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명현관 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여러 여건이 미흡해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의 확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남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과 화원산단 해상풍력배후단지 20만㎡(6만평) 등 2개소, 총 86만㎡(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어 기업 이전·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꿈의 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꿈의 도시 조성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주말 Hot 썸머 페스티벌 영암 월출산기찬랜드서

영암군이 8월 3~4일 월출산기찬랜드 빛찬광장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Hot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천연 자연폴장 등 물놀이 시설을 갖춰 지역 안팎에서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찬랜드에서, 올해 빛찬광장을 조성한 기념으로 이번 페스티벌을 마련한 것. 3일에는 이준용 가수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남주경의 서커스, 고민석의 색소폰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그룹 윙크는 트로트 메들리로 공연 관람객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4일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장영조의 조선마술패 공연에 이어, 최의목·더블루이어즈·하멜·리사의 재즈·발라드·락 콘서트, DJ춘리의 EDM 공연이 열린다.

송민섭 기자

완도군,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광 활성화 도모

완도군 노화를 이포리에 위치한 건강테마촌 일원에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됐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인근 유휴 부지에 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생활권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노화 건강테마촌은 체육시설 및 공연장이 기설치되어 있고 노화읍·보길면 주민의 문화 공연,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늘 등 녹지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군은 수종 선정부터 도입 시설물 등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숲을 조성했다.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 노화 건강테마촌 일원 4000㎡ 부지에 구실잣밤나무, 먼나무 등 43종 총 9095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특히 수목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토양 개량과 전체 수종의 절반 이상을 지역 자생 수종과 난대 수종을 식재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민관협력체계 역량강화 교육 진도군

진도군은 지난 24일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약 3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박재형 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성과 역할,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방법, 그리고 특화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현장 활동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공감되는 교육이었다는 평가다.

교육에 참석한 김모씨는 “청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홍보하고 청장년 1인 가구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펴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의 민간 해결사입니다.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진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강진 반값 여행’ 홍보관 운영 광주 신세계서

누구라도 강진 반값여행이 광주·전남 인근지역에서 인기 여행상품으로 흥행가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반값 강진여행 홍보관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은 광주·전남 핫플레이스인 광주신세계백화점 고객 대상 ‘누구라도 강진 반값여행’을 집중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오픈한 이래,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지난 27일 열린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 이벤트’는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반값 강진여행 사전신청자 대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과 강진 쌀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관이 자리 잡은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각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 상생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반값 강진여행 홍보관 마련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강진군의 반값+강진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는 개인 또는 친구, 연인, 가족 누구나 여행비 절반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강진만의 파격적인 여행상품이다.

강진을 여행하는 당일까지 강진반값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사전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제출 한 번으로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종료 후 관광지 1개소를 방문한 인증사진과 5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구비해 정산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바로 반값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임영춘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고문, 수용자에 아이스크림 전달 임영춘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고문(왼쪽 세 번째)이 30일 목포교도소 소장실에서 흑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자에게 전달할 아이스크림 3000개(225만원 상당)를 김남진 소장에게 기부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제공

무안군, 마을공동체 꼬마학교 ‘꼬마학당’ 개강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의 성공사례를 ‘꼬마학당’으로 이어 나간다.

무안군은 지난 29일 일로읍 백련문화

센터에서 마을공동체 꼬마학교 ‘꼬마학당’을 개강했다.

마마학당의 2탄인 꼬마학당은 일로읍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 30명이 참가하였

으며, 개강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의장, 김봉성·박쌍배·임운택 의원, 김준현 일로읍 이장협의회장이 참석해서 아이들과 풍선아트도 함께 하는 등 자리를 빛냈다.

무안=김행언 기자

‘개매기 체험’ 즐기러 진도 청용어촌체험마을로 오세요

진도군 진도읍에 위치한 청용어촌체험마을 앞 갯벌에서 오는 8월 3일 ‘개매기 체험’이 진행된다.

개매기는 조차를 이용한 전통 어업방식의 하나로 갯벌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갇히도록 하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물이 빠진 갯벌 위 그물에는 주로 숭어, 농어, 돔 등의 다양한 어류가 걸리게 되며 이때 체험 관광객들이 갯벌 안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직접 잡는다.

체험료는 어른 2만원, 어린이 5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어촌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개매기 체험을 위한 갯벌 입장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입장 시간은 당일의 수위 등 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진도군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청정해역 보배섬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평생 잊지 못할 독특한 체험인 개매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